

# 6·25 전사 아버지 무덤 70년 만에 찾은 유복자의 눈물

### 여수시 보훈단체 도움으로 찾아 “생일에 꿈만 같아... 의미있는 선물”

“내일이 제 생일인데 아버지를 만나게 된 오늘이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선물입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은 유복자(遺腹子·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가 보훈단체의 노력으로 아버지 무덤을 찾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일 여수시 화장동 국군 묘지 앞에서 선 김모(70)씨.

1951년 태어난 김씨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 김씨의 아버지 김득천 육군 일병은 김씨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인 1951년 9월 강원 양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했기 때문이다. 김득천 일병은 당시 나이 26세였다.

고(故) 김득천 일병은 전사 후 우여곡절 끝에 고향인 여수시 국군 묘지에 안장됐다.

그러나 전쟁 당시 혼란기 등으로 김 일병 유족은 70년 동안 김 일병이 잠들어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최근 여수시 보훈단체가 이곳 국군 묘지에 안장된



고(故) 김득천씨 묘소를 찾은 아들 김모씨.

〈여수시 제공〉

고인 57명 중 김 일병을 포함한 23명의 기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수십년동안 연결되지 못했던 유족과 연락이 닿았다.

하고, 유족들을 꾸준히 찾아 현충원이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훈단체는 이들의 군번·고향 등의 기록을 전쟁기념관, 현충원,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등 백방으로 수소문해 유족들과 연락을 취했고 고 김 일병의 아들과 연결됐다.

70년 만에 아버지의 무덤 앞에 마주한 김씨는 “아버지의 묘를 찾기 위해 어머니 생전에 여수에 내려와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이렇게 찾게 돼서 꿈만 같고 내일이 제 생일인데 아버지를 만나게 된 오늘이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선물이다”고 밝혔다.

정일량 여수시 보훈단체 운영협의회장은 “국군 묘지에 가족 찾기 안내판을 설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전남적십자에 물품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최근 적십자 봉사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물품(멘소래담, 파스 등) 1만 1600개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에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 기아 오토랜드 광주 밀알봉사회, 어등재활원에 성금



기아 오토랜드 광주 밀알봉사회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어등재활원에 전달,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 전남대병원간호사, 버스서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코로나19 최일선’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의 간호사가 출근길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20대의 여성 승객을 심폐소생술(CPR)로 구했다.

주인공은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김초원 간호사이다.

김 간호사는 지난 17일 오전 출근길에 뒀던 시내버스가 학림교를 지나 전남대병원 남광주역으로 향하던 중 ‘쿵’ 소리와 함께 탑승했던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신속하게 응급처치에 나섰다.

쓰러진 여성은 의식이 없었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김 간호사는 바로 다른 승객에게 119에 신고해달고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CPR 시행 30여초 만에 다행히 의식을 회복



했고, 김 간호사는 환자를 안정시킨 후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면서 버스가 전남대병원 앞에 도착하자 응급실까지 부축해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서야 출근했다.

김초원 간호사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며 “그날 저녁 환자로부터 감사하는 장문의 카톡을 받고 보람을 느꼈고 감사의 뜻으로 보내주신 선물은 정중히 거절했다. 앞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aT, 윤미정 식품진흥처장 임명 창립 54년 만에 첫 여성 처장



윤 처장은 1991년 입사한 이후 수출, 홍보, 전시컨벤션 등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2016년 aT 최초로 여성 2급 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에 첫 여성 처장이 되며 ‘여성 1호’ 수석어를 이어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차장 아래 처음으로 여성 처장을 임명했다.

aT는 오는 23일자로 시행하는 하반기 인사에서 윤미정 식품진흥처장을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처장직에 여성이 오른 것은 aT가 창립한 지 54년 만에 처음이다.

윤 처장은 1991년 입사한 이후 수출, 홍보, 전시컨벤션 등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2016년 aT 최초로 여성 2급 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에 첫 여성 처장이 되며 ‘여성 1호’ 수석어를 이어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호남대 유재연 교수, 언어치료학회 기념사업회 위원장 선임

호남대학교 유재연 언어치료학과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언어치료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한국언어치료학회 기념사업회는 1990년 5월 학회창립 이후로 우수학술지 발간사업,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언어재활사 교육 프로그램 진행, 언어치료학의 학제간 융합 활동 등 한국의 언어치료 분야 발전을 이끌어 온 학회의 지난 30년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언어치료 분야가 나아가야 하는 선진모델과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유재연 교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언어치료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학회의 매우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고, 앞으로 한국언어치료 학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는 데 많은 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미치지 않고서(재)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경찰수업(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레널2(재) 50 뽀뽀뽀 좋아좋아	00 SBS 12뉴스 35 KBC저녁뉴스 50 행복설계 알짜배기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재) 30 TV 유치원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농친 예능 따라잡기 40 조선팔, 드림 더 비트(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2020 MBC 경영평가 결과보고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빨강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백종원 클래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경찰수업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40 개는 훌륭하다	3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스페셜	2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디큐	1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나이트라인 30 닥터 365 35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히어로 씨클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활속 방과 후 토크쇼
07:00 최강종3	12:10 EIDF 2021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19:05 머털도사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표류하는 마을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꼬미와 베키	13:45 EIDF 2021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	19:5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너의 이야기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댕동맹 유치원	15:15 클래식 e	〈홍미진전 유럽 사전
08:30 출동! 슈퍼윙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미켈란젤로와 르네상스 신학, 이탈리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명TV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로로	16:00 마사와 꿈	〈명랑 귀촌 1부 우리가 추드로 온 끼닭은〉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IDF 2021 개막방송
09:30 우당탕탕 아이큐	16:30 댕동맹 유치원(재)	-일상의 특별함을 담다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23:05 EIDF 2021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올림의 탄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3일 (음 7월 16일 癸卯) ☎ 010-9790-8237

<p>36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48년생 외형까지 신경 쓰던데 부가적 효과가 따른다. 60년생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으니 여과 없이 참고함이 나올 것이다. 72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84년생 정성을 다 했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96년생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2, 65</p>	<p>42년생 전체적인 국세에 따르는 편이 낫다. 54년생 허상일 뿐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다. 66년생 현실적으로 실현 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78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실속 있다. 90년생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02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2, 62</p>
<p>37년생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49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 없다. 61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다. 73년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이른다. 85년생 참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97년생 진정한 자선이란 희생에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9, 68</p>	<p>43년생 지나간 것은 자치하고 앞으로 다가 올 일에 신경 쓰자. 55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67년생 숙명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79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91년생 몸은 고맙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03년생 원만하게 진행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4, 69</p>
<p>38년생 대상의 선정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것이니 각별히 신경 써라. 50년생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다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62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가 될 것이니 감내하고 지내라. 74년생 습관이란 위험의 자매이니라. 86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로다. 98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6, 85</p>	<p>32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4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56년생 잠시 숨을 돌릴 겨를이 꼭 필요하다. 68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한다. 80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92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28, 99</p>
<p>39년생 일부터 시간을 내서라도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 놓을 이 합당하다. 51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풀려 갔다가 오히려 얽히게 된다. 63년생 변변치 못한 결과 앞에서 상심해 하는 형상이다. 75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87년생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을적이다. 99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89</p>	<p>33년생 남에게 말기치 말고 직접 처리했을 때 푸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45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라. 57년생 좌우지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69년생 지켜보고만 있을 정황이 아니니 직접 뛰어 들어야 한다. 81년생 짐작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93년생 변화가 생기면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다. 행운의 숫자 : 31, 74</p>
<p>40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52년생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후련하겠다. 64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76년생 마음속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투명하게 의사 표시하라. 88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라. 00년생 팔복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66</p>	<p>34년생 내부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46년생 분수와 격에 맞아야 순조로울 것이다. 58년생 바쁘게 쓰다녀야 할 일이 벌어지겠다. 70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82년생 상대의 언행에서 충분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94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으니 낙심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5, 77</p>
<p>41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53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 되는 형국이다. 65년생 생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다. 77년생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살펴라. 89년생 일 안에서 맴돌아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01년생 당황하지 말고 무난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0, 54</p>	<p>35년생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세가 달라진다. 47년생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59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71년생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운 일이 보인다. 83년생 미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95년생 푸리가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6, 98</p>